

【 국 어 】

1.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선거가 몇일 후에 시작한다.
- ② 고향을 오랜동안 떠나 있었다.
- ③ 진로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했다.
- ④ 그의 연설에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다.

2.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은?

- ① 굶다[굴따] ② 넓다[넙따]
- ③ 맑다[막따] ④ 얇다[압따]

3.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요일에 워크샵이 있다.
- ② 과장님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 ③ 그 배우는 애드리브를 잘한다.
- ④ 회의를 위해 준비한 파일이 사라졌다.

4.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영화가▽떠난▽지▽보름이▽지났다.
- ② 그▽여자는▽사흘만에▽집에▽돌아왔다.
- ③ 쌀,▽보리,▽콩,▽조,▽기장등을▽오곡이라▽한다.
- ④ 예전에▽가▽본▽데가▽어디▽쯤▽인지▽모르겠다.

5.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 ② 귀여운 영수의 동생을 만났다.
- ③ 그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 ④ 나는 사과 한 개와 배 두 개를 먹었다.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 우리 고양이는 머리가 좋다.
- ㉡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강아지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 ㉣ 지영이는 나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다.

- ① ㉠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② ㉡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③ ㉢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④ ㉣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7.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에도 뿔러 씨나 마이어 씨 할 것 없이 다들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고양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뚜렷한 자기주장이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으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① 목적 없는 독서를 지양해야 한다.
- ② 책을 읽을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 ③ 읽은 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④ 책을 대할 때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랏:말뜨·미㉠中·國·국·에·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
스·못·디아·니·홀·씩·이런전·츠·로㉡어·린·百·백·姓·성·이
니르·고·저·홍·배이·셔·도·ㅁ·츄:내제·ㅅ·들시·러·퍼·디:
몬·홍·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ㅎ·야㉢어·엇·비·너·겨·
새·로·스·물·여·ㄷ·字·중·를·밍·ㄱ·노·니·사·름·마·다·히·여·수·
비·니·겨·날·로㉣부·메·便·便·安·한·키·ㅎ·고·저·홍·ㅅ·ㄹ·미·니·라

- ① ㉠: 처소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였다.
- ② ㉡: ‘어리석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③ ㉢: ‘불쌍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④ ㉣: 명사형 전성 어미를 사용하였다.

※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저재 내려신고요
어귀야 준 디를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 디 ㉣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나)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9. ㉠~㉣에 대한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멀리멀리’라는 의미이다.
- ② ㉡: ‘전쟁터’라는 의미이다.
- ③ ㉢: ‘놓으십시오’라는 의미이다.
- ④ ㉣: ‘저물까 두렵다’라는 의미이다.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대상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담겨 있다.
- ② (나)는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분연체를 이룬다.
- ③ (가)는 떠난 임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④ (나)는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민요적 시가이다.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소재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사람의 내면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복숭아나무의 피상적인 모습이다.
- ② ㉡: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드러나 있다.
- ③ ㉢: 복숭아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복숭아나무의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 자규(子規) | 야 아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냥하여 즈 못 드러 호노라
- 이조년

(나)
님이 오마 호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회 치드라
안자 ㉡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山) 바라보니 거머뿔들 셔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 즌 디 므른 디 골희지 말고 워령
충창 건너가서 정(情)엿 말 호려 호고 젓눈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열사흔날 골가 벽진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 만정 흥혀 낮이런들 ㉣ 놈 우일 번 호패라
- 작자 미상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으로 설정된 배경이 주제와 호응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색채를 대비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두견새가 알겠느냐마는
 - ② ㉡: 양손을 반갑게 흔들고
 - ③ ㉢: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 ④ ㉣: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

15. ㉠과 상반되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는?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라두, 내 입 한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
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린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 채만식, 「미스터 방」

- ① 四面楚歌
- ② 刻骨難忘
- ③ 九死一生
- ④ 背恩忘德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난 순간 (또는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관습적으로 원손잡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고, 아기방을 분홍빛으로 장식한다. 원손잡이 아기의 젖병, 턱받이, 고무젖꼭지 그리고 큰 다음에는 컵, 접시, 도시락, 책가방까지 주로 분홍색이나 보라색이며 나비, 꽃, 요정으로 장식되어 있다. 부모들은 원손잡이 아기의 머리카락을 기르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카락이 너무 짧을 때에는 머리핀이나 리본을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오른손잡이 아기들은 분홍색 옷을 입을 일이 없다. 분홍색 장신구나 장난감을 가질 일도 없다. 오른손잡이 아기들에게는 파란색이 인기 있는 색상이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른손잡이 아이들의 옷이나 다른 물건들에는 보통 자동차, 스포츠 장비, 우주 로켓이 그려져 있고, 나비, 꽃, 요정은 결코 그려져 있지 않다. 오른손잡이들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짧게 유지되고, 장신구로 예쁘게 꾸미는 일은 매우 드물다.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원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 데 금방 능숙해진다.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나 원손잡이나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하게 된다.

우리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항상 성에 딱지를 붙인다. 아이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옷이나 머리 모양, 장신구로 성 표기가 되지 않은 아기나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어른들이 계속해서 ‘그, 그녀, 남자, 여자, 소년, 소녀’ 같은 말로 성을 구분한다는 것을 안다.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 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16. 윗글의 서술 전개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
- ②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한다.
- ④ 문제의 원인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17. 윗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른손잡이 아이들은 창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② 원손잡이 아이들은 자기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된다.
- ③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인 학습의 결과이다.
- ④ 성 역할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 결과이다.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엷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 ① 지난 행적을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갈등이 시간 순서대로 명료하게 해소되고 있다.
- ③ 타인의 심리를 추측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
- ④ 주변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째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確的)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젠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場)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똥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 래야지.”

“㉣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③ 허 생원은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④ 허 생원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허 생원은 서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
- ② ㉡: 허 생원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직접 알려 주고 있어.
- ③ ㉢: 허 생원은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며 자랑하고 있어.
- ④ ㉣: 허 생원은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어.